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1.2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 강 영 수(02-2100-2690)		담 당 자		박 정 원 사무관 (02-2100-2531)
	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 채 울(02-3145-7850)				김 용 태 전자금융팀장 (02-3145-7425)

제 목 : 세계일보 1.3일자 “가상화폐 정책 ‘오락가락’ 거래소·이용자 혼란 가중” 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세계일보는 1.3일자 “가상화폐 정책 ‘오락가락’ 거래소·이용자 혼란 가중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타행 입출금 차단한다더니 5일만에 “출금은 허용” 번복, 외국인 거래 제한도 불투명”이라고 보도

< 보도 참고 내용 >

- ☐ 지난 12월, 「관계부처 차관회의」에서 발표한 “정부,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”에 따라
 - 「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」로 전환된 이후에는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입출금은 차단될 예정이며
 - 기존 이용자의 경우 입금은 차단되나 출금은 제한한 바 없음
- ☐ 한편, 외국인 거래 제한 관련 사항은 이미 은행이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등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제한 범위만 확정하면 시행할 예정임